

“밤번” 간호원의

## 고충과 기쁨

박 성 숙

(서울대학병원 근무)

### “밤번”

간호원이란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거의가 태양의 힘이 잠을 깨어 광금마차를 탈리기 시작할때 일터(?)에 나가 배시까지 일해야하는 “낮번”, 세시반부터 열한시반까지 병실을 맡아보는 “조번”, 그後부터 이튿날 아침 일곱시반까지의 “밤번” 등의 삼부조대란 바위에 얽혀 활터가게 마련인것이다. 태양의 힘이 깊이 잠들어 밤은 깊고 만상이 고요해지는 시간에 일터에 나가야하는 “밤번”의 시기는 거의 한달에 6~8일씩 돌아오게 된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는 박씨의 생활을 하게되는것이다.

### “출근”

열한시 오븐전부터 반년을 깨우려 다니시는 기숙사 아주머니의 녹크와 이튿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다. 죽은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아쉬울다. 더구나 옆에 천수가 푹 잠들고 있는것을 보면 일어나지 않아도 별 그가 부림기까지한 아쉬움이 있다. 아직 자리에 누운채로 타다오의 다이알을 돌린다. 제이방송국의 가벼운 고전음악시간의 Signal Music이 울려 나온다. 징신을 차려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시 얼굴을 매단전後 췌을 쓰고 복장을 입은 後 Stocking을 신고 다

을 여유있는 시간을 유효하게 보내리라는 생각에서 “색” Radio를 듣고 문을 나선다. 밤의 찬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창경원 동물원의 점승우는 소리가 가끔 들려온다.

길 양옆에 있는 썩썩한 숲속에서 무엇이라도 튀어나올것만 같은 무서움이 들자 라디오를 크게 크게 틀어 거기에다 두서운 마음을 내려며 빠른 걸음으로 병실로 向한다.

### “인계시간”

빠편을 던지는 시간,…… 어느 팀과의 티벳 시합을 예상하며 우리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착실하게 일한 사항, 각 환자의 정확만 상태, 병실에서 일어났던 일, 주사기, 고무장갑, 도노 tray 등의 공급신 물품, 혈압기, 가위, flash, cinema can, IV. stand 등의 병신티품을 조번으로 부터 인계를 받는다. 인계를 받은後 “초번” 간호원이 들어가면 Station에 혼자 덩그렁 남게 된다. 갑자기 밤의 깊음과 만상의 고요함이 들어 탁치는것만 같은 적적함과 허전함을 어디로 저치할수 없을것만 같다. 이럴때면 연제된지 환자의 이름이 쪽 쓰여진 흑판을 읽고 Kardex, Head Nurse work sheet 등을 보기 시작하드르해써 明日을 위한 alcohol sponge, Mercurochrome sponge 등의 소도품을 준비, Plaster 갈아 받

기, 새입원 환자를 위한 Chart 만들기, 등의 밤번의 일이 시작된다.

### “잠의 천사”

비록 빌려오는 쪽숨에 못이겨 책상에 엎드려 혹은 의자에 기대어 눕기도 하더…… 또 이 시간에 잠잘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류의 사방이라도 부러워지기까지 할때도 있거던 반번간호원의 큰 일무의 하나는 환자들을 밤사이에 피도록이면 안면을 取할수 있게끔 하는것이므로 이러한 임무달성을 위해서라도 병실을 순회하여 수면상태를 관찰하게 된다. 어떤때는 잠의천사가 된 기분으로 병실문 하나 하나를 가만가만 열고 환자가 눈을 감고 폭은히 잠들고 있는가 발빛굽을 들고 걸 어다니며 bed 와 bed 사이를 Round 한다. Pain 으로 피로워하면 Demerol 보 sedation 을, insomnia 로 피로워하면 Seconal or U-R 을, abd-distention 이 있어 Rectal tube 의 insertion 을, 늑등의 主로 F. R. N. order 의 환응으로 잠들지 못하고있는 환자에게 원인을 알아서 피도록 잠을 일우개끔 노력해 본다.

그後 환자들이 잠들게 되어 작병실의 불이 꺼지게 되고 Silent night 이 이루어지게되면 어딘지 모르게 흐릿한 느낌이 들게 된다.

### “3 O'clock syndrome”

제작년인가 부터라고 생각된다. “인턴”들의 유행어나 eleven O'clock syndrom 이란 말을 흔히써 웃은 일이 많았다. 이 말의 뜻인즉 열십들넘어 열한시 경인 Midnight 이 오게되면 배가 곱아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민생고를 해결해야만 되겠다는 말이 나오게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term

으로 밤번시 대강의 일을 마치고 나서 신문까지 읽고나면 세시썰이 된다. 이때부터 몸이 비비 틀릴것만 같은 시간이 엄습해 오는것이다.

머리가 무겁고 하름이 저주 나고 진의 천사가 eyelids 까지 내려오고 박 찬공기로 Chillness 가 오고 hunger pain 등의 여러 증상이 한대 통인 3 O'clock syndrom 이 나타나게 된다. syndrom 은 그렇게 약성은 아니어서 치료의 방법은 간단한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자청 방번잡독이 되어 ward 몇난대를 순회(?)하고 돌아오며 대강의 symptom 은 없어지게 된다.

### “퇴근”

통금해제 싸이렝이 불고나서 졸았으면 동이 흰하게 터오기 시작하며 세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빨리 빨리 지나간다. 6시가 되면 솜환자들의 Vital sign 을 재고 Intake, out put 등을 Check 하여 Charting 을 하고 환자의 밤새 상태 등을 자세히 Charting 을 끝낸다. 그다음 공급실 물품을 계자디에 차려 놓아 다음 duty에게 편리를 주도 복 後. “24시간 보고서 용지에 虛患者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다. 이로써 길고 긴밤의 일이 대강 끝나 다음 “낮번”에게 인계할 준비를 한다. 일곱시반이 되면 “미쓰 누구 수고!”가 딸던 기수경례식의 인사를 반갑게 주고 받은後 훌훌 인계, 환자상태의 인계를 하드르써 밤번의 일이 끝나게 된다. 환한 태양 밑에 밤에 고했던 점들을 물어버리며 오늘 낮에는 잠을 많이 자두리라는 마음으로 속소로 향한다.

무슨 일이던지 지내고 보면 그렇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더구나 기쁨을 느낀만한것은 못되는 것이 밤번이 아닌가 한다.

# 밤 과 흰 옷 과 나 와

국립의료원 흉곽내과 鄭 靈 姬

언제부터서인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니 슬픔이니 하는 어휘들이 그 농도를 흐려갔는지 정말 안타깝다.

색으로 비교한다면 三次色에 가까운 감정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탓인지 혹은 가슴이 짜릿하도록 젖어드는 사치스런 情緒들이 원통 흰색에 吸收된체로 도태해버린 탓인지 막상 원고청탁을 받고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망서려지기만 한다.

막연한 고충, 더듬어 내기 힘든 기쁨을 表現하기엔 너무나 마음이 어설퍼진 탓인가?

이제 겨우 햇병아리를 면한 주제에 누구나 다 겪어온 사실들이나 체협한 常情들을 유독 自己만이 차지한듯이 골로 써야함은 우선 밤번看護員이기에 가지는 고충 제1조에 속한다고 해두고 값싼 自己변명따위는 그만두기로 하자.

밤과 흰옷입은 女人과는 무적이거나 가깝다. 그것은 단지 나이팅게일 핏불을 이어받은 후예이기때문 이거나 또는 어둠이 속삭이는 密語들을 음미할수 있는 時間에 일한다는 그 條件만이 아니다.

이는 그시간 만큼은 혼자외 정성으로 고통에 뚝부림치며 잠못드는 삶들을 보살펴야 하는 참됨, 알찬 시간이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個人的 私心같은 것은 一切 털어 버리고 어두운 병실안을 가만가만 보살피는 복된 이 시간은 간호원이 아니면 아무도 누릴수 없는 선택된 人生의 과정이다. 그들의 숨소리, 들릴듯 말듯한 박동이며 일그러진 表情들, 호소하는 눈길들을 無言의 對話로 직시하고 달래노라면 가눌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나 티끌들은 옥심들은 어느샌가 순화되어 삭으려져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더 큰 환희가 또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 알량스러운 하얀 미소마저 피우고 일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가보다.

밤 근무시간이 11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인데 이곳 흉곽외과에서는 겨우 숨을 돌이킬수있는 시간이란 운이좋아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다. 그때가 되면 책상앞에 앉아서 뜻모를 落書를 한다던가, 바스락거리는 가을의 고북을 쉼는다던가, 훑하고 불어오는 5월의 아카시아향기를 마실수있는데도 다 이시간이다. 소복소복 쌓이는 겨울의 속삭임을 들으며, 천둥치는 여름밤에 가슴을

조이는 일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자세를 알아보려고 努力하는 貴한 시간이요 기쁜 공간이다.

어찌된 셈인지 환자가 死攬에 이르러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다닐 때에는 무섭다는 생각이나 불안감이 없이 일할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작은일들 때문에 나는 가슴을 조이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하기야 응급시에는 당직의사나 밤권감독이 같이 있는 탓도 있으리라.)

우선 생각키우는데로 손끝을 떨었던 일들을 더듬어보자.

어둠을 뚫고 갑자기 울려오는 고함소리, 바로 병원근처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문이 덜커덩 거린다던지, 또는 틀리던 발자욱 소리가 갑자기 안들린다던지,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때, 비오는 날이면 감전이 잘된다는 생각때문에, 사망한 환자가 있는 병실엘 들어가야 할때, 또 누워자던 환자의 침상이 비었음을 발견했을때, 무거운 산소통을 움직이며 이것이 터질가하여 조심할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작은일 때문에 가슴을 조이는 일은 확실히 고통에 속한다.

또 다른 고통은 낮에 잠을 잘 못하는 일이다. 살등이니 집착이니 하는 살찐 감정들때문이라던 오죽 좋겠으련만 이진 그게 아니다.

하필이면 병원뒤로 廣大를 옮겨왔는지 속상해 죽겠다. 그 아름다운 소음의 세배 때문에 원통 말초신경이 긴장을 한다. 밤에만 잠을자던 순수한 휴정도 원인이겠지만 아무튼 낮에 제대로 잠못자자는것은 아직 간호

원으로서 환경에 적응못한 탓일것이다. 아무튼 잘려고 努力하는 것처럼 더 큰 고민은 없을것이다. 신문술 수면제로 들척거리다가, 태디오 다이알을 틀려봐도 역시 자잠가는 월수없이 눈은 그대로 뿔뿔뿔뿔. 그래서 아예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달려본다.

그러온 열골들을 그려보노라던 그 옛날 보리밭 이랑을 따라 냉이랑 꽃바지를 깨던 영이 숙이들의 환영들을 찾을수 있다. 지금은 무엇들을 하고 있을까?

흙냄새가 들큰 코언저리를 적시는 차각수에서 눈이 아물거려 오기 始作한다.

밀풀처럼 싹 피르가 전신을 휩쓰는 순간 나는 어린애처럼 잠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 못드는 고통도 달콤한 기쁨이 되는셈이다. 잊어버렸던 고향의 들과 산, 빠알장게 불이 붙었던 소녀들, 포근했던 요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음은 매마른 生活에 윤활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기때문이다.

그러고보면 고통도 기쁨도 모두가 얼버무려진 셈이다. 역시 이 두 극단의 감정들을 同一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설일까?

그러길래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게 흰옷을 입고 커가는 것이다.

나중에 지옥에도 천국에도 못가는 신세가 될지라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시간 만큼은 행복하다.

만약에 요만큼의 여유마저도 없어 적버리는 때가 온다면 나는 밤과 흰옷 입은 女人을 어떻게 表現할것인가?

## 벽촌에 계신 K선생께



(세브란스 병원 근무)

김 주 희

경애하는 K 선생님.

제가 누구를 사랑할수 있다고 감히 서 앞에서 입을 열어 보겠어요? 허나 선생님. 지금 이 시간만은 난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에 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아우성으로 부적대던 낮이 가고 어둠이 찾아든지도 오랜 이런 길은 밤! 외로운 지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짐을 짊어 갈 이린 시각에 여기 놀라운 별들의 한곳만 불이 밝습니다. 희미한 불빛속의 작은 생소들을 하나 하나 헤아리며 좁어진 복도를 가노라던 저편 끝에 들날 등 여인을 보는것 같습니다.

K 선생님! 누구나 자신을 옹호하려는 본능을 쉽게 버릴수는 없겠지요. 저도 그편 예를 범치 못하여 여기 이렇게 마음을 도사려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음 이시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 세육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것을 이 하룻밤 까맣게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게 받쳐진 이 많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선 이 한밤의 무장한 기

병이나된듯 기운이 지릴때 까지 싸워야 하고 또 싸울 것입니다. 내두 손과 발은 이 밤의 고통을 몰아내기 위해 쉬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이밤의 모든 고통과 정적과 평화가 내 영역에 가득하기 위해 나 전체를 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K 선생님! 이런 얘기를 지겨질 수 있는 지를 자랐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패자와 자란이라구요? 러기야 “남들이 모두 잔자는 시각에 단장을 못자고 긴 길 밤을 종종걸음 해야하는 너의 직업을 특은히 여기며 동정하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귀에 익도록 들어 왔읍니다.

해가 기운 저녁길에 시계를 지고 가는 구리빛 얼굴에 빈전 미소의 의미를 난 아직 알지 못합니다. 새벽 파발에 웃음을 날리며 묻 짓는 아낙네의 병화로운 자백의 근원이 어디인지 난 알수 없습니다.

K 선생님! 이한 줄음에 쫓기며 그대나 기어이 고고한 위치에 버티고 서 있으려는 나의 어쩔수 없는 집념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증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네

적은 신념아래 흐르고 있는 기쁨을 이해하실수 있으실까요?

누구나 자기네 직업을 나쁘게 말하기 싫어 하겠죠.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속이야 어쨌든 자기의 직업이 가장 좋다고 여가고 또 여겨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더욱 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줄이 큰 탓이라고 웃으시렵니까?

**K**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중단해야겠습니다. 새벽 새벽 자는 애기들이 깨어날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고 자그만 손발들을 허우적 대며 배고픈 호소가 울음으로 터질 시간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난 그들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 모퉁이 방에서 거친 숨소리가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러 줍니다. 간간히 짧은 울음이 섞였어요. 잠 들지 못하고 아까부터 보채던 그 준이가 틀림없죠. 그의 누운 곳이 배기지 않게 만져주고 젖은 기저귀를 갈때 내 손은 가장 보란에 차며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억눌림을 당하곤 합니다. 난 그 순간 그들의 엄마같은 모성애를 느껴보며 또 그들의 엄마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을 간수하고 보호해야 하는 내 의무의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 엄숙한 자세가 되는가 봅니다.

“당신도 엄마가 되어 보세요! 앓는 애기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미친여자 같은 나를 홍보하지 마세요. 당신이 엄마가 되면 지킴의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난 종종 엄

마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옵니다만 아직 그 말의 진리를 체념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 이런밤 순간 그런 얼마들의 말을 입속에 처가려 보며 혼자 웃어 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속에 밤새 보채며 우는 애기를 앞에 놓은 얼마의 고통이 뼈를 짚기는 육감적인 것이라면 그 아픔을 뜻대로 제거 할수 없어 고통스런 엄마와 애기를 함께 지켜보아야 하는 내 밤의 고통은 가슴에 무거운 쇳덩이가 짓눌려 오는 증압감을 어찌지 못해 답답한 괴롭이 탈까요?

**K** 선생님!

밤은 많은 사람에게서 저주도 받았지만 또 많은 이들에게서 찬미를 받아 온 것으로 압니다. 역대의 많은 시인의 노래 속에 불리우던 정적으로 고요한 밤 대신 병에 틀붙이는 이 지역위에 내려진 어둠의 밤이란 항상 지경계도 고통스럽고 고통이 따르는 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새 이 높다란 병실 한쪽에서 일하며 배우는지도 오래된것 같습니다. 사람의 둔결속에 복적이는 이 큰 병원의 낮은 책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는 나나 누구나 생각하기를 잊은 채 문결에 젖어 시간이 갈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K** 선생님, 이 시간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이곳 밤이 불을 밝히고 빼없이 일해야하는 내 고통이 없으 수 없습니다.

어른 아이할것 없이 끈히 취해 버린 숨소리만으르 가득찬 방안에 홀로 서서 떨

어지는 냉철 주사약의 방울을 세고 다시 조절하는 내 행동은 어떤 환자도 알아 차리지 못합니다. 밤새 드나 들며, 백박을 질어 붙면 아무 일 없이 자던 아이도 아침이 되어 다시 물어 보면 밤새 잠을 못 잤다는 대답은 예상외로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밤 내내 비몽하며 울던 어떤 엄마없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 달래다 못해 나도 함께 이마를 맞대고 울고 싶던 일이 생각하워 집니다. 무척 몸이 피로한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 날카로워 지는 신경을 어쩔수 없습니다.

**K 선생님!** 전 지능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내 강한 교질과 연결된 이 긴장감이 없다면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야 발도 못 피트가 틀렸읍니다. 이 피트는 육체적인것 보다 발질을 자지 못 한다는 그 자체의 정신적 압박감이 더 큰 비장을 차지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K 선생님!** 내게 이런 피로를 쉬히 잊고 내일이면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일할수 있게하는 어떤 알지못할 힘의 작용한다는 것을 늘 알수 있습니다.

석양에 지게지고 가는 늙은 아버지의 심정이나 새벽 우물가에서 일손이 바쁜 아낙네의 마운속 평화모양 무엇인지 모를 즐거움이 제 맘 구석에도 어디로 부터인가 스며든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이 버려진듯한 허탈것 없는 나 같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은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시간 피로워 신음하는 그들이 내게서 어떤 도움을 얻을수 있고

또 내 손을 거쳐 조그만 괴롭이라도 덜어지고 내 미소에 잠시나마 평안을 얻을수 있다면 나라는 한 개체의 무엇을 아끼고 남길수 있을까요? **K** 선생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살게 마련인 모양입니다. 내가 남을 돕고 또 나도 도움을 받고 살수있다는 사실이 살벌한 세상에서나마 인간적 데투리 속에 응위되는 느낌입니다. 아름다운 인간문화를 위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는 귀한 의욕을 부여준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K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 제게 들려 주신 얘기가 생각하워 집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지만 제가 어릴적 귀를 가웃등 거리며 들던 그때 말씀은 날이 갈수록 뚜렷이 제게 육박해 오는것 같습니다. “남에게 사랑받는 행복보다는 남을 사랑하는 행복이 더욱 크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K 선생님!**

남들이 아무리 날 비웃어도 지금 이 시간 전 부끄럼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날 대수롭게 보아 주지않는데도 이 시간 제 맘은 흐뭇한 만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날 축운히 여긴데도 이 시간 제 맘은 즐거히 웃음으로 답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K** 선생님! 제가 누구를 감히 사랑할수 있다고 뉘 앞에 내 세울수 있었습니까? 허나 이 시간만은 세상의 누구보다 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희열에 가슴이 벅차있다고 아뢰고 싶습니다.